

1. 다음 대화에서 '선배'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후배: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 어,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후배: 네, 선배님. 그런데 선배님처럼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정말 주변 눈치 보며 열심히 했는데요. 막상 떨어지니까 막막하네요. 그래서 선배님 뵙고 좋은 말씀 좀 들었으면 해서요.
 선배: 저런! 떨어졌다니 막막하고 힘들겠네. 그 마음 나도 잘 알아요. 사실 나도 아나운서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후배: 정말요? 저는 선배님은 한 번에 쉽게 붙으신 줄 알았어요.
 선배: 한 번에 붙었다고요? 아니에요. 네 번이나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나운서가 되어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지.
 후배: 역시 그러셨군요. 선배님 말씀 항상 마음에 담아 두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게요.

- 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② 관용적 표현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새로운 화제로 말을 돌리며 상대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동작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2.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방송을 들은 후 '나무 개구리'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소년 여러분, 개구리는 물이 없거나 추운 곳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막은 매우 건조할 뿐 아니라 밤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생물들이 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 서식하는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호주 북부에 있는 사막에 살고 있는 '나무 개구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나무 개구리는 밤이 되면 일부러 짹 짹하고 추운 밖으로 나와 나무에 앉았다가 몸이 싸늘하게 식으면 그나마 따뜻한 나무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추운 데 있다 따뜻한 곳으로 갔을 때 안경에 습기가 서리듯, 개구리의 피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수분으로 나무 개구리는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추위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나무 개구리가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 ①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군.
- ② 천적의 위협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생존하고 있군.
- ③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있군.
- ④ 주어진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켜 생존을 이어가고 있군.
- ⑤ 다른 존재와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군.

[3~4] 다음은 학급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급회장: 다음 주에 가는 수학여행에서는 조별로 방을 쓰고 활동도 조별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를 짜는 것이 좋을지,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중학교 수학여행 때는 번호 순서대로 조를 짰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하지 않은 아이랑 한 조가 되다 보니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숙소에서도 다른 방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원하는 친구들끼리 조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저도 수학여행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조가 되면 수학여행이 더욱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조에도 못 들어가고 홀로 남는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또한 여행을 통해서 평소에 어울리지 않던 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 순서대로 조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번호 순서대로 조를 짜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같은 조가 되면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반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원하는 친구와 조를 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급회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어떤 방식으로 조를 짜든 불만이 있는 학생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선 수학여행 장소부터 결정하도록 합시다.
 학급회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원하는 친구끼리 조를 짜야 한다는 의견과 번호순으로 하자는 의견,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 투표를 해서 조를 짜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의 토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안건 제시
: 토의할 사안을 제시함. ①
- 의견 발표
: 안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발표함. ②
- 의견에 대한 평가
: 제시된 의견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평가함. ③
- 의견의 내용 정리
: 제시된 의견을 세 가지로 정리함. ④
- 의결 방법 제시
: 의결할 내용을 제시하고 의결 방식을 발표함. ⑤

4. '수지'에게 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②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③ 안건에서 벗어난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④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 ⑤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5~6]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지난 겨울에 참 추웠죠?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파가 자주 발생할까요? 평년의 경우에는 '극 제트'라는 공기 장벽 때문에 북극 지방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등으로 북극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북극 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극 제트'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극 지방의 몹시 찬 공기가 '극 제트'를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추위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북극 지방의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고 질문해 봅시다.

학생 1: 어느 정도 추워야 한파라고 하는지,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학생 2: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한파가 자주 발생하나요?

학생 3: 한파로 인한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방금 ①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안'에 대한 글을 써 오세요.

5. 선생님의 첫 번째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파의 특징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한파의 빈번한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한파와 대비되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고 있다.
- ④ 한파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한파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6. 위 수업을 듣고 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한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안

1. 서론
 - 가. 한파에 대한 정의..... ①
 - 나. 지역별 한파 발생 빈도..... ②
2. 본론
 - 가. 한파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 ③
 - 나. 한파를 초래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 ④
 - 다.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⑤
3. 결론: 논의를 종합하여 주제를 강조

[7~8] 다음은 학교 소식지에 실을 '고궁 탐방기'를 쓰는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계획

- 내용 조직: '고궁의 뜻 제시 → 현존하는 고궁 소개 → 고궁의 공간 구분 설명 → 내가 간 고궁에서의 감상 서술 → 고궁 방문 권유'의 순서로 전개함.
- 고려할 점: 고궁 방문을 권유할 때는 고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계획에 따라 쓴 초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고궁은 그리 많지 않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번에 내가 탐방한 고궁은 경복궁으로, 그곳에서 우리나라 고궁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었다. 경복궁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생활 공간인 교태전의 후원에 있는 아미산 굴뚝이다. 아미산 굴뚝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모서리마다 세겨진 사군자, 십장생, 봉황 등의 무늬가 무척 아름다웠다.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지만, 이렇게 조형적인 기교가 뛰어난 석조물을 만든 우리 조상들의 미적 안목이 놀라웠다.

문화유산해설사의 말에 따르면 고궁은 크게 정무 공간, 생활 공간, 정원 공간으로 나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 공간은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화사하게 채색된 단청이 주는 아름다움과 하늘로 살짝 뻗어 올라간 처마가 주는 운치도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고쳐 쓰기 방안

1. 글 전체 수준
 - ‘내용 조직’을 고려하여, 고궁의 뜻을 설명하는 내용을 서두에 추가한다.……………㉠
 - ‘고려할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내용을 추가한다.…………… [A]
2. 문단 및 문장 수준
 - ‘내용 조직’ 순서에 맞지 않으므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 셋째 문단의 ‘이어진다’는 ‘그 이유는’과 호응되지 않으므로 ‘이어지게 한다’로 고친다.……………㉢
3. 단어 수준
 - 둘째 문단의 ‘세겨진’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새겨진’으로 고친다.……………㉣
 - 셋째 문단의 ‘비치되어’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배치되어’로 고친다.……………㉤

7. ‘고쳐 쓰기 방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고쳐 쓰기 방안’의 [A]를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고궁에 가서 선인들의 옛 정취를 느껴 보자.
- ② 고궁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 ③ 고궁은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고궁에 가면 잃어버렸던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고궁을 찾아가 아름다운 고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9~10] <보기 1>은 사실을 쓰려는 학생의 ‘작문 상황’과 ‘사고 과정’이고, <보기 2>는 작문에 활용하려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 보기 1 > —

[작문 상황]

‘신문 사실 읽기반’ 동아리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사실을 써 보라는 과제를 부여받음.

[사고 과정]

오늘 신문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예전에 다른 신문에서 자격증 취득 열풍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봤던 기억을 떠올렸어. 그리고 나니 ‘자격증 취득 열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탐구하여 사실을 써 보고 싶어. 그러려면 우선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한 다음 그 원인을 분석해야겠지. 그리고 나서는, 직장인들이 자격증 취득 열풍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논지로 삼아 강조해야겠어. 물론, 자격증 취득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겠지.

— < 보기 2 > —

(가) 설문 조사 결과 자료

직장인 9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1.9%가 ‘직장 생활 중 자격증 취득 준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나) 연구 보고 자료

19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6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문 기사 자료

1.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모두 3천여 종, 1년에 발급되는 자격증은 90만 건을 넘는다.
2. 자격증 열풍 속에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교재를 팔거나 비싼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 인터뷰 자료

“직장 생활 틈틈이 자격증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되고 진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더군요.”

9.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제문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는 공인받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②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직장인이 많다.
- ④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⑤ 직장인들에게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보기 2>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제시하면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을 부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 ② (나)를 활용하여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의 원인 중 하나를 설명해야겠어.
- ③ (다)-1을 제시하면 자격증 취득 열풍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강조할 수 있겠군.
- ④ (다)-2를 활용하면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 ⑤ (라)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거야.

1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사과를 먹는다’는 ‘사과’, ‘를’, ‘먹-’, ‘-는-’, ‘-다’의 다섯 개의 형태소로 분석된다. 형태소 중에는 ‘사과’처럼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를’, ‘먹-’, ‘-는-’, ‘-다’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후자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 하늘에 별이 많다..... [A]

- ① ‘하늘에’는 세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 ② ‘별이’는 자립 형태소만으로 구성되었다.
- ③ ‘많다’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 ④ ‘에’와 ‘이’는 모두 자립 형태소이다.
- ⑤ ‘별이 많다’에는 세 개의 의존 형태소가 있다.

12. <보기>의 자료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키가 큰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 키가 큰,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ㄱ

○ 엄마는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 엄마는 사과 하나와 귤 두 개를 주셨다..... ㄴ

○ 오빠와 동생은 선생님을 찾아갔다.
→ 오빠와 동생은 함께 선생님을 찾아갔다..... ㄷ

○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 그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ㄹ

○ 이번 시험에서 답을 몇 개 쓰지 못했다.
→ 이번 시험에서 답을 몇 개밖에 쓰지 못했다..... ㅁ

- ① ㄱ은 쉼표를 추가하여 꾸미는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친 것이군.
- ② ㄴ은 다의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과일의 수를 분명히 드러냈군.
- ③ ㄷ은 조사를 첨가하여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였군.
- ④ ㄹ은 적절한 단어를 추가하여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친 것이군.
- ⑤ ㅁ은 어순을 변경하여 부정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친 것이군.

13. <보기 1>의 [A], [B]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1 >

[복합어의 종류]
[A] 파생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
예) 덧-신, 떡-이
[B]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예) 별-집, 길-바닥

< 보기 2 >

ㄱ. 멧쟁이 ㄴ. 몰래카메라 ㄷ. 배나무 ㄹ. 풋사랑

- | | [A] | [B] |
|---|------|------|
| ① | ㄱ, ㄴ | ㄷ, ㄹ |
| ② | ㄱ, ㄹ | ㄴ, ㄷ |
| ③ | ㄴ, ㄷ | ㄱ, ㄹ |
| ④ | ㄴ, ㄹ | ㄱ, ㄷ |
| ⑤ | ㄷ, ㄹ | ㄱ, ㄴ |

14. <보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

[표준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ㄴ(ㄴ, ㄷ, ㅌ, ㄷ), ㄹ(ㄹ, ㄷ, ㅌ, ㄷ)’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ㅌ, ㅍ,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꺄]

[표준발음법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 | | [표준발음법 제23항] | [표준발음법 제26항] |
|---|--------------|--------------|
| ① | 국물 | 결단 |
| ② | 막대 | 발전 |
| ③ | 밥그릇 | 걸출 |
| ④ | 숨이불 | 일식 |
| ⑤ | 웃고름 | 열기구 |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피동 표현은 주체가 남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예를 들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은 주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남에 의해 ‘잡는’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다.

- ① 밧줄을 세계 당기다.
- ② 동생의 머리를 감기다.
- ③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 ④ 후배가 선배를 놀리다.
- ⑤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 홀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멀어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

(나)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새내기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뺨도 설게 ㉣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금점판: 금광의 일터.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과거 사건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나)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담고 있다.
- ③ (가)는 시적 화자의 삶을, (나)는 시적 대상의 삶을 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7. <보기>는 시 창작 수업의 일부이다. [A]~[E]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시를 창작할 때는 시어를 잘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시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인이 밑줄 친 시어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무엇인지 한 명씩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열무 (단/삼십 단)을 이고..... [A]
 아무리 (빨리/천천히) 숙제를 해도..... [B]
 배추잎 같은 발소리 (뚜벅뚜벅/타박타박)..... [C]
 금 간 창틈으로 (아련히/고요히) 빛소리..... [D]
 내 유년의 (아랫목/윗목)..... [E]

- ① 제훈: [A]에서 '삼십 단'은 어머니의 삶의 무게가 부각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 ② 선주: [B]에서 '천천히'는 애써 외로움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심리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③ 현빈: [C]에서 '타박타박'은 힘겨운 삶에 지쳐 있는 엄마의 고단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 ④ 영숙: [D]에서 '고요히'는 '빛소리'에 위안을 받으면서 화자의 무서움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⑤ 승연: [E]에서 '윗목'은 유년기에 느꼈던 화자의 서러움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 중, <보기>의 '이 울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울음은 인물이 느끼고 있는 한(恨)의 정서가 자연물에 이입된 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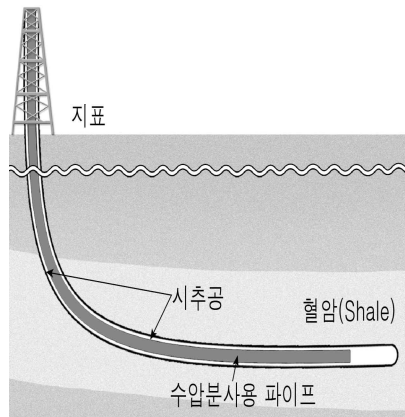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셰일 가스(Shale Gas)는 지하 2천~3천 미터 아래 혈암(頁巖, Shale)이라는 암석에 분포된 천연가스이다. 셰일 가스는 오래 전부터 엄청난 매장량이 확인되었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셰일 가스보다 지표면에 가까운 특정 공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어 손쉽게 채굴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천연가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의 고갈이 예견되면서 셰일 가스를 채굴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혈암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조밀해서 유체*가 투과되기가 어려우며, 점토질 성분이라 균열되기는 쉽지만 균열이 잘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셰일 가스는 혈암의 미세한 틈새에 끼어 넓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최대 수십 km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수직으로 시추공*을 뚫어 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적인 채굴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 기존의 '수평정 시추법'과 '수압 파쇄법'을 개선하여 결합한 최신의 채굴법이 등장했다.

수평정 시추법은 L자형의 시추공을 만드는 방법이다. 시추용 드릴이 수직으로 뚫고 내려간 뒤 특정 지점[Kick-off]에서 진행 방향을 조금씩 바꿔 나중에 진입점[entry point]이라는 곳에서 지층과 수평하게 파고 들어감으로써 시추공을 만드는 기술이다. 드릴 끝에는 한 개의 큰 분사구와 두 개의 작은 분사구가 삼각형을 이루며 위치한다. 그 분사구들로 특정 지점에서 진입점에 이를 때까지 진흙을 고압으로 분출시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큰 분사구 쪽으로 구멍이 깊게 파이고 그쪽으로 드릴의 진행 방향이 휘게 된다. 그런데 수평의 시추공은 지각의 압력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길이의 시추공이 만들어지면 드릴을 빼고 파이프를 삽입한 다음, 특수 시멘트를 주입하여 시추공 벽면을 얇게 바름으로써 견고하게 만든다. 이후에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추공을 수평으로 연장해 나간다.



시추공을 뚫은 뒤에는 혈암에 균열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때 높은 수압을 이용하는 수압 파쇄법이 동원된다. 균열은 시추공의 맨 끝부분에서 시작하여 진입점 쪽까지 단계적으로 나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만든다. 균열을 만드는 과정은 시추공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파이프를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파이프를 우선 시추공의 끝 부분까지 삽입한 후 모래와 특수 화학 약품이 혼합된 물을 분사한다. 그러면 수압으로 인해 혈암에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에 모래와 특수 화학 약품이 들어가 일정 시간 균열을 유지한다. 이렇게 균열을 만들고 나면 파이프를 뒤로 끌어당기고 이미 균열이 만들어진 시추공과 새로 균열을 만들 시추공 사이를 코르크 마개로 병을 막듯이 마개로 막는다. 이것은 새로운 균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에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평의 시추공 전체에 균열을 만든 다음에 마개를 없애면 균열로 인해 흐름이 원활해진 셰일 가스가 시추공을 통해 회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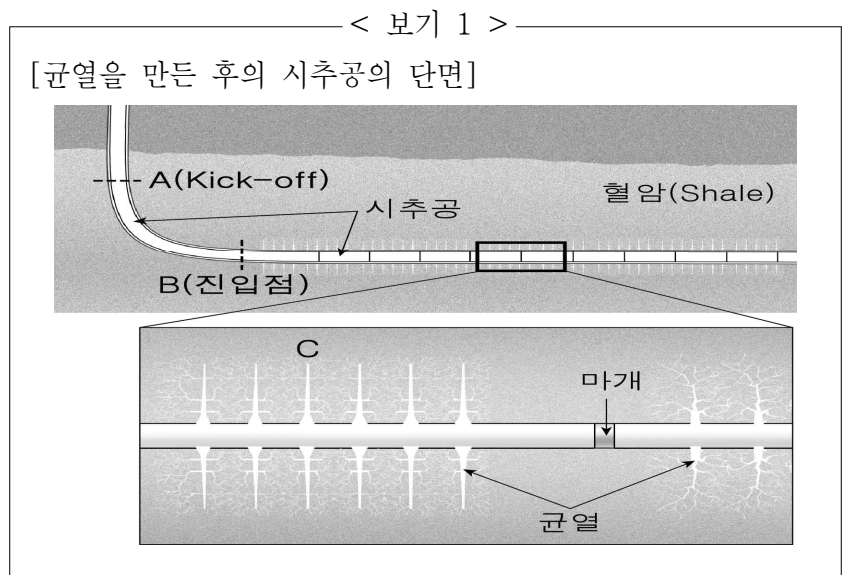
이러한 최신의 채굴법이 개발됨으로써 수직 시추법처럼 지표면에 수십 개의 시추공을 뚫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 개의 수직 시추공에 방향을 달리하여 수평으로 시추공을 여러 개 뚫음으로써 수직 시추공의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신의 채굴법은 개당 가스 회수율을 높여 채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 유체: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시추공: 지질 조사나 광상(鑛床)의 탐사 따위를 위하여 뚫은 구멍.

19.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 ① 지구에 매장된 셰일 가스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
- 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언제쯤 고갈될 것인가?
- ③ 수압 파쇄법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 ④ 최근까지 셰일 가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최신 셰일 가스 채굴법과 기존 시추법의 채굴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 보기 2 >
- ㄱ. A에서 진흙 분사가 시작되고 B에서 멈추는 것이겠군.
 - ㄴ. A에서 시추공의 방향은 드릴의 큰 분사구의 반대쪽으로 휘어지겠군.
 - ㄷ. B에서 멀리 떨어진 균열일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겠군.
 - ㄹ. C 부분의 균열을 만들 때 필요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마개'가 이용되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암이 균열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래와 특수 화학 약품을 이용하였다.
- ② 입자들 사이가 조밀해서 수직으로는 시추공을 뚫을 수 없는 혈암에 알맞다.
- ③ 수평의 시추공에 특수 시멘트를 얇게 발라 지각의 압력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④ 셰일 가스가 존재하는 혈암의 특성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다.
- ⑤ 넓게 산재되어 있는 셰일 가스를 채굴하기 위한 기술이다.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있거늘 ㉢ 가슴이
 금즉하여* 풀쩍 뛰어 내닫다가 ㉣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 모쳐라 날랜 나일세망정 어혈(瘀血)* 질 뻔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백송골: 흰 송골매.
 * 금즉하여: 섬뜩하여.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멍이 드는 일.

(나)
 ㉠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있거늘 ㉢ 저야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곱비님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
 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 사흔날 값아 벗긴 ㉣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고나.
 ㉤ 모쳐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 거머뿔들: 검은 듯 흰 듯한 것.
 * 곱비님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엇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 위령충창: 우당탕통탕.
 * 주추리 삼대: 발머리에 심어 둔 삼의 줄기.

2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구조상 ㉠~㉤과 ㉡~㉣는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이는, (가)는 거만하게 위세를 뽐내다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나)는 오졌다고는 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 ① ㉠이 비판의 대상이라면, ㉡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이 거만함이 반영된 것이라면, ㉣는 기대감이 행동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 시적 대상의 심리라면, ㉢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이 성찰을 유도하는 소재라면, ㉠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이 자신을 합리화한 표현이라면, ㉢는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상황을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내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신문 기자인 ‘나’는 어떤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C읍으로 간다. 그곳에서 만난, 트럼펫을 불던 사내는 나에게 ‘허 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허 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천장 포장을 걷어 짓히고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허 노인은 흰 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듯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노인의 모습은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줄을 타는 허 노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오면 그의 온몸은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단장은 그런 허 노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다.

—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 주란 말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단장은 허 노인을 매번 나무랐다. 허 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 하고 땀만 뻘뻘 흘러다간 단장 앞을 물러나 오곤 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허 노인은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타는 것이었다. 운은 누가 뭐래도 허 노인이 그렇게 줄을 타는 것이 좋았고, 자기도 그렇게 줄을 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줄 위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노인의 발길이 한 번 변을 일으켰다. 딱 한 번 노인의 발길이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줄이 잠시 상하 반동을 했다. 허 노인은 가만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곧 다시 줄을 건너갔다. 누구도 그것을 실수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객석에 눈을 두고 있던 단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함성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줄이 상하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허 노인이 줄을 잘 탔다고 하는 것은 운의 생각입니까, 혹은 노인의 생각입니까?”

나는 트럼펫의 사내가 숨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로 뛰어들었다. 사내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번씩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물론 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께서 운의 생각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렇지요.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많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운은 나와 나이가 가장 가까웠으니까 제가 그의 심중을 비교적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고, 그도 제게만은 조금씩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벌써 나팔장이가 다 되었으니까 웬만큼 나팔을 불어 주고 남은 시간을 대개 그 부자가 지내는 뒷마당에서 보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 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날**이었지요. 마침 그 날도 나는 운이 줄타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날은 허 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노인은 갑자기 ‘이놈아!’ 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나는 줄 위를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 이놈…… 너는 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느냐?
운이 줄을 내려왔을 때 노인이 호령을 했으나, 그는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어요. 내가 놀란 것은 그때 허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길로 곧 함께 주막 술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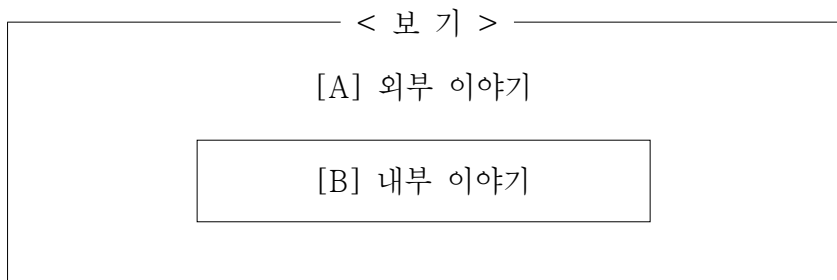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생애를 운에게 떠넘겨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에는 있는 것 같았다. 운은 비로소 허 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알 것 같았다.

—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 줄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그날 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다. 운이 앞을 서고 허 노인이 뒤를 따랐다. 운이 줄을 다 건넌을 때는 객석이 뒤숭숭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뒤를 따르던 허 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 만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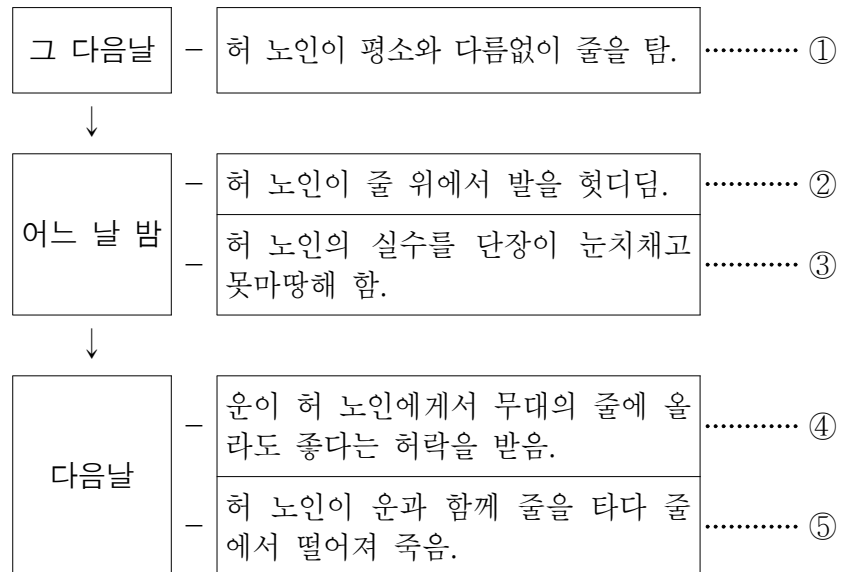
— 이청준, 「줄」 —

24.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문 기자인 ‘나’는 [A]의 서술자이다.
- ② 신문 기자인 ‘나’는 [B]에 등장하지 않는다.
- ③ ‘사내’는 [B]를 신문 기자인 ‘나’에게 전해 준다.
- ④ [B]에서 ‘사내’는 ‘허 노인’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 ⑤ [B]의 사건들은 [A]의 사건들보다 시간상 앞서서 발생했다.

25.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의 귀가 열리지 않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군.
- ② 운의 생각이 땅에 머물고 있음을 한탄하는 행동이군.
- ③ 운의 잘못된 줄타기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동이군.
- ④ 운의 줄타기가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기뻐하는 행동이군.
- ⑤ 운이 자신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질책하기 위한 행동이군.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청준은 예술가나 장인들의 세계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이들은 세속적 가치를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엄격성을 지키려는 인간들이다. 또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고 예술혼을 고양시켜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애쓰는 인물들이다.

- ① 채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는 ‘허 노인’이 지키려는 장인으로서의 엄격성에 대한 침해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② 마지막까지 ‘줄’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허 노인’은 전형적인 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허 노인’이 단장의 질책에, 줄타기를 할 때처럼 땀을 흘리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줄 위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허 노인’의 말에는 일생을 통해 깨달은 근원적인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허 노인’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키려는 태도와 관련 지어 해석할 수 있겠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자는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자신의 철학적인 문제로 끌어안고 집요하게 사유했던 사람이다. 장자는 다음과 같은 ‘송나라 상인 이야기’를 통해 타자와 마주친 상황을 설명한다. “송나라 상인이 모자를 밀천삼아 월나라로 장사를 떠난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 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월나라에서 모자를 팔려던 송나라 상인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낯섦’과 마주친 것이다. 장자는 자신에게 낯선 공간이야말로 타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낯섦’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자가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장자가 언급한 ‘성심(成心)’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심이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치우친 마음으로 자기의 입장을 극대화하여 고정된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심에 따라 각자의 관점을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결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분별을 고착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성심이 타자와의 소통과 조화를 방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타자와 만났을 때, 이러한 성심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장자는 다음과 같은 ‘바닷새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한다.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아름다운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 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 하고 슬퍼하기만 하다가 사흘 만에 죽어 버리고 말았다. 이는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분명 바닷새와 같은 야생의 새는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할 것이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음식을 함께할 수 없다. 바닷새는 특정 기호가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노나라 임금이 새를 가두어 죽이려 한 것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바닷새가 죽은 것은 노나라 임금이 자신의 성심에 따라 ‘새’라는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닷새를 ‘나’와는 다른 ‘새’로서 대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타자를 기성의 선입견 등으로 가득 찬 마음, 즉 성심에 따라 타자를 나로 인식하고자 할 때 타자와의 소통은 원천적으로 막힐 뿐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 또한 어그러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장자의 철학을 ‘소통(疏通)’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막힌 것을 터버린다’는 ‘소(疏)’ 개념과 ‘타자와 연결한다’는 ‘통(通)’ 개념에서, ‘트임’이라는 타자로의 개방성을 상징하는 ‘소(疏)’ 개념은 결국 ‘비움’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성심을 따르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비움으로써 타자와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타자와의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장자가 고민한 타자와의 소통의 문제는 갈수록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8. 윗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ㄱ. 예화를 인용하여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ㄴ. 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ㄷ. 핵심 쟁점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ㄹ. 문제가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그 변화 과정을 개괄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성심을 버리지 못한 행위이고, ㉡은 성심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② ㉠은 상대적 관점에 의한 행위이고, ㉡ 절대적 관점에 의한 행위이다.
 ③ ㉠은 타자와 소통하려는 행위이고, ㉡은 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행위이다.
 ④ ㉠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 결과이고, ㉡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결과이다.
 ⑤ ㉠은 고정된 자기 관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은 확고한 신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30. ㉢에 담긴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에게 해 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질문]: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짜증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친구 사귀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친구들과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집에 있기가 싫어해요.

[대답]: _____

- ① 부모님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선부르게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② 혼자 힘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대개 고등학생쯤 되면 부모님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 보세요.
 ④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께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대화 방법을 통해 부모님을 이해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⑤ 오랜 경험에서 얻은 부모님들의 판단이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자기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소비자가 각 상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비자의 태도는 경제성, 내구성 등 개별 상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소비자의 평가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속성 만족도 - 중요도 모델’이다.

만족도란 상품의 어떤 속성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이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소비자가 동일 종류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평가할 때,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개별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태도는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곱한 후, 이 곱한 값들을 합한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태도 점수}[A] = (B_1 \times I_1) + (B_2 \times I_2) + \dots + (B_n \times I_n)$$

[B: 속성 만족도, I: 속성 중요도]

이 때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는 (+)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그 정도는 숫자의 크기로 표현한다. 즉 ..., +2, +1, 0, -1, -2, ...와 같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속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매우 중요한 경우까지 0, +1, +2, +3, ...과 같은 숫자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 속성이 여러 가지일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더 큰 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속성 만족도 - 중요도 모델에서는 소비자는 여러 상품들을 평가한 후 가장 높은 태도 점수가 나오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비자는 안전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자. 소비자는 ‘갑’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여 +1점을 주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여 +2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을’ 자동차는 안전성은 매우 만족하여 +2점을 주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여 -1점을 줄 수 있다. 이 때, 이 소비자가 안전성을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안전성의 중요도는 +2로 주고, 경제성의 중요도는 +1로 줄 수 있다. 속성 만족도 - 중요도 모델에 의하면 ‘갑’ 자동차의 태도 점수는 $4(1 \times 2 + 2 \times 1 = 4)$ 이고, ‘을’ 자동차의 태도 점수는 $3(2 \times 2 + (-1) \times 1 = 3)$ 이 된다. 따라서 속성 만족도 - 중요도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는 ‘갑’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업은 속성 만족도 - 중요도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사 제품에 대해 갖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경쟁사와 비교하여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속성을 개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 만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속성의 중요도를 높이도록 유도하여 제품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소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속성을 부각시켜서 소비자가 그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1.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 ② 소비자의 태도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으로 나타낸다.
- ③ 소비자의 만족도는 속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 ④ 제품의 어떤 속성은 소비자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 ⑤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을 평가할 때 소비자는 속성의 중요도를 제품별로 달리 부여할 수 있다.

[32 ~ 33] <보기>는 ‘[가], [나], [다]’ 텔레비전에 대한 어느 소비자의 ‘속성 만족도 -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속성	중요도	만족도		
		[가]	[나]	[다]
화질	+7	+5	+5	+5
가격	+5	0	+1	+2
사후 관리	+5	+4	+1	-3
디자인	+1	-1	+2	+1
각 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		+54	+47	+31

32.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가], [나], [다] 제품의 순서로 선호하겠군.
- ②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화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겠군.
- ③ 이 소비자가 가격의 중요도를 바꾸어도 [가] 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는 변화가 없겠군.
- ④ 이 소비자는 [가]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속성들에 비해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군.
- ⑤ 이 소비자는 [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겠군.

33. ㉠과 관련하여 [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선택할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센터를 증설한다.
- ② 제품의 화질을 개선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 ③ 회사의 사회 공헌 내역을 홍보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 ④ 해당 제품의 음질이 우수하다면 이를 알리는 광고를 제작한다.
- ⑤ 소비자가 디자인의 중요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실시한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래 곡산 어미는 곡산 기생으로 대감의 애첩이 되었는데, 성격이 방자하고 오만하였다. 설령 종이라도 마음에 맞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거짓말로 헐뜯어 사생결단을 내니, 사람이 못 되면 기뻐하고 잘 되면 시기하였다. 대감이 용꿈을 꾸고 길동을 얻은 사실을 사람마다 칭찬하고 대감 또한 길동을 사랑하시니, 이후로 대감의 총애를 빼앗길까 걱정하였다.

또한 대감이 이따금 농담 삼아 “너도 길동 같은 자식을 낳아 나의 노년 재미를 도우라.” 하거늘, 몹시 무안해하는 중에 길동의 이름이 날로 자자해지자 이를 더욱 시기하였다. 초나가 길동 모자를 눈의 가시같이 미워하다가 해치려는 마음이 급하여 흥계를 짜게 되었는데, 재물을 주고 요사스런 무녀 등을 불러 모아 매일 같이 오가며 모의하였다. 한 무녀가 말하였다.

“동대문 밖에 관상을 보는 계집이 있는데,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 평생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판단합니다. 이제 그를 청하여 약속을 정하고 대감께 추천하여 집안의 전후사를 본 듯이 말씀드리게 한 후, 이어 길동의 상을 보고 여차여차 아뢰어 대감의 마음을 놀라게 하면 낭자의 소원을 이룰까 합니다.”

초나가 크게 기뻐하여 즉시 관상녀를 불러들여 재물을 안기며 대감택 일을 날날이 가르치고 길동을 제거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에, 날을 기약하고 돌려보냈다.

하루는 대감이 내당에 들어가 길동을 부른 후에 부인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 비록 영웅의 기상이 있으나 어디다 쓰리오?”

농담하며 웃고 있는데, 문득 한 여자가 밖에서 들어오더니 대청 아래서 인사를 올렸다. 대감이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여자가 엮드리며 말했다.

“소녀는 동대문 밖에 사는데, 어려서 한 도인을 만나 사람의 관상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도성 안의 수많은 집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관상을 보다가, 대감택에 반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한 재주를 시험해 보고자 왔습니다.”

대감이 어찌 요사스런 무녀와 문답을 주고 받겠는가마는 길동을 희롱하던 끝이라 웃으며 말했다.

“네 어쨌든 가까이 올라와 내 평생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

관상녀가 몸을 굽히고 대청에 올라 먼저 대감의 상을 살핀 후에 이미 지난 일들을 역력히 아뢰고 앞일도 보는 듯이 이야기하니, 털끝만치도 대감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대감이 크게 칭찬하고 이어 집안사람의 상을 의논하는데, 날날이 본 듯이 말하여 한마디도 허망한 곳이 없었다. 대감과 부인과 좌중의 사람들이 크게 혹하여 신이 내린 재주라 일컬었다. 끝으로 길동의 상을 논하는데, 크게 칭찬하며 말하였다.

“소녀가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공자의 상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잘 모르긴 해도 부인께서 몸소 낳은 자식은 아닌 듯합니다.”

대감이 속이지 못하고 말했다.

“그것은 네 말이 맞다. 사람마다 길흉(吉凶)과 영욕(榮辱)이 각각 때가 있는데 이 아이의 상을 각별히 논해 보거라.”

관상녀가 길동을 그윽하게 보다가 거짓으로 놀라는 체하거늘, 대감이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어도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대감이 말하였다.

“길흉을 털끝만치도 숨기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하여 나의 의혹을 없게 하라.”

관상녀가 대답했다.

“이 말씀을 바로 드리면 대감께서 놀라실까 걱정입니다.”

대감이 말했다.

“옛날 곡분양 같은 사람도 길한 때가 있고 흉한 때가 있었으니 무슨 여러 말이 필요한가? 관상법에 보이는 대로 숨기지 말고 말하라.”

관상녀가 마지못하여 길동을 내보낸 후에 조용히 말하였다.

[A] “공자에게 장차 일어날 일은 여러 말씀 그만두고 성공하면 군왕이 될 것이요, 실패하면 감히 헤아리지 못할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대감이 크게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진정이 된 후에 관상녀에게 후하게 상을 내려 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을 삼가 입 밖에 내지 말라.”

엄히 분부하고 말했다.

“길동이 늙도록 바깥출입을 못하게 하리라.”

관상녀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대감이 누누이 당부하니, 관상녀가 손을 모으고 명령을 따를 것을 약속하고는 나갔다.

대감이 이 말을 들은 후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여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하였다.

‘이놈이 본래 평범한 놈이 아니니, 또 천생(賤生)임을 한탄하여 만일 분에 넘치는 마음을 먹으면, 대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은혜에 보답하였던 일이 쓸 데 없어지고 큰 화(禍)가 우리 가문에 미칠 것이로다. 미리 저를 없애어 가문에 닥칠 화를 덜고자 하나 차마 인정에 못할 일이로구나.’

(중략)

초나가 황공하여 다시는 말을 못하고, 내당에 들어가 부인과 대감의 장자에게 여쭙었다.

“대감이 관상녀의 말씀을 들으신 후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더니 마음에 병환이 나셨습니다. 소인이 일전에 이리이러한 말씀을 아뢰었더니 꾸중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이 대감의 마음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대감께서도 길동을 미리 없애고자 하시나 차마 실행에 옮기시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미련한 소견으로는 길동을 먼저 없앤 후에 대감께 아뢰면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대감께서도 어찌할 수 없으므로 근심을 아주 잊을까 합니다.”

부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일은 그러하겠지만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니 차마 할 바가 아니다.”

초나가 다시 여쭙었다.

“이 일은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으니, 첫째는 국가를 위함이요, 둘째는 대감의 환후를 위함이요, 셋째는 흥 씨 가문을 위함입니다. 여타의 작은 사정으로 우유부단(優柔不斷)하여 여러 가지 큰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다가, 장차 후회막급할 일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B] 온갖 방법으로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달래니, 마지못하여 허락하였다. 초나가 속으로 희희낙락하며 나와 특자라는 자객을 청하여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전하고는, 은화(銀貨)를 듬뿍 주고 오늘 밤에 길동을 해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34. [A]와 [B]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B]에는 인물의 외적 갈등이 주로 드러나 있다.
- ② [A]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B]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B]는 배경의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④ [A]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B]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계기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⑤ [A]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B]는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35. 윗글에 <보기>의 '아기장수 설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때, '길동'과 '아기장수'의 공통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미친한 부부가 아이가 없어 근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신령이 나타나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후, 열 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태어난 지 삼 일이 된 아기가 시렁 위에 올라가며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달려 있었다. 부모는 아이가 장수가 될 재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옛날에는 평민의 집에 장수가 태어나면 역모를 피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삼족을 멸하였다. 그래서 왕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은 부부는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 했다.

- ① 태몽에 신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 ② 혈육에게 비범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 ③ 지배 질서를 위협할 존재로 인식됩니다.
- ④ 주변 사람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합니다.
- ⑤ 혈육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합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문이란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나 그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조선 시대 가문은 사회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가문이 개인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 ① 초남은 가문의 안위를 내세우면서 부인을 설득한다.
- ② 대감은 관상녀의 말을 듣고 가문의 안위에 대해 걱정한다.
- ③ 부인은 가문과 인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문을 위한 선택을 한다.
- ④ 초남은 가문에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관상녀를 불러들인다.
- ⑤ 대감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동을 해치자는 초남의 의견을 수용한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문제구는 아버지인 문덕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낙월도에서 장사지내기 위해 아버지의 관을 싣고 김철과 함께 낙월도로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문덕배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한다. 김철은 배를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먼저 섬에 올라온다.

S# 19. 이장집 마당

비가 내리고 있다. 대청 마루에 동팔과 순돌이 술병을 가운데 두고 어색하게 걸터앉아 있다.

이장 (방안에서) 어이, 동팔이. 옛친구한테 인사나 허게. (김철이 일어나려 하자) 몸이 불편한데 그냥 누워서 인사허게.

김철 두루 평안하신가? 자네도 많이 늙었네.

동팔 40년 세월인데 워찌졌는가? 자네는 아직도 청년이네. (김철을 대하는 태도가 냉담하다.) 그동안 자네가 시인인가 머신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네만, 어쩐 일로 우리 섬에 다 찾아오셨는가? 나는 자네가 우릴 까맣게 잊어뿌렸는 줄 알았는디.

이장 자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잔씩 하면서 이야기 [A] 허세.

순돌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며) 참 그놈의 비 구질게도 온다.

이장 자, 김선생도 우선 한잔 하시오. 한잔 하면 속이 풀리고 정신이 짝 들것잉게. 모처럼 고향에 오셨는디, 인사가 아니네만..... 우리 별섬 출신 중에 김선생 같은 유명인사가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여. (모두들 술을 마신다. 그러나 김철은 손에 든 술잔을 바라보기만 할 뿐 마시지 않는다. 술잔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이윽고 그는 술잔에 입을 대지 않은 채로 그냥 내려놓는다.)

이장 아니, 우리 시인선생님은 왜 술을 안 드시나?

순돌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술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디?

김철 동팔이, 배 들어오게 하게.

동팔 (말없이 떨어지는 빗발만 바라본다.)

김철 4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면 어찌자는 건가? 아무리 맺힌 원한이 깊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네. 이건 법에도 없는 일이야.

동팔 흥, 나같이 무식한 무지렁이가 워찌 법을 알 것이여? 법 잘 알고, 돈 많고 뻘 있는 서울 사람들잉게, 마음대로 혀 봐! 하지마는 나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문덕배 그 인간은 절대로 이 섬에 못 묻힌단 말여!

이장 어허, 그렇게 흥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초조한 듯 김철과 동팔의 눈치를 살피며 술을 따른다.)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혀도, 자네가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올라온 사람이여. (술 주전자를 흔들며) 야들아, 여그 술 더 가져오니라!

김철 자네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40년 세월이 지난 일 아닌가? 강산이 바뀌어도 네 번이나 바뀌었으니, 이젠 그때의 상처를 잊어버릴 때도 되었다는 게 내 생각이네.

동팔 잊어버릴 때도 되었다고? 무신 소리여? 40년이 아니라

백년이 지나도 이 가슴에 박힌 못이 빠질 성 싶어? 여그, (자신의 가슴을 헤쳐 보인다.) 여그 박힌 ㉠ 대못을 누가 빼내 준단 말이여?

이장 근디 재구 그 사람도 알 수 없네이. 서울 근방에는 땅이 없나? 왜 하필이면 기어코 여기에다 ㉡ 묘지를 쓰겠다는 거여?

김철 돌아가신 양반이 생전에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걸세. 자기가 죽으면 꼭 낙월도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 부모 뜻을 어떻게 저버리겠나?

순돌 그럼, 자식된 도리야 응당 그래야재. 문사장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는겨.

동팔 지랄하고 자빠졌네. 성님은 언제부텀 문가네 개노릇을 하게 되었소?

순돌 머시 어째야? 지랄? 문가네 개? 너 말 다 했냐?

동팔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성님이 그 땅빼기 안 팔았으면 문가네 놈들이 어찌키 이 섬에다 무덤을 쓰겠다고 들어오겠시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다고 배알이고 체면이고 다 팔아먹는단 말여? 에라이..... (㉢ 막걸리 잔을 쳐드는데, 이장이 팔을 붙든다.)

이장 어허, 이 사람 왜 이러나?

순돌 (벌떡 일어나며) 이, 이놈에 자숙, 말하는 본새 좀 보소이.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김철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본다. 여러 사람의 사진들이 한 사진틀 안에 들어 있다. 서서히 클로즈 업 되면 그 중에 '천구백오십년(一九五十年) 면민 체육대회 기념(紀念)'이라 쓰인 낡은 흑백 사진이 보인다.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표정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도려져 있다.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Off Scene*)

동팔 문덕배 그 인간이 우리 섬에다 어떤 짓을 했는지 벌써 다 잊어뿌렸단 말여?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땀시 죽었간디?

이장 어디 자네 아버지뽀이랑가? 이 낙월도 전체가 문덕배 한 사람 땀시 썩발이 되었뿌렸제. 허지마는..... (㉣ 도려진 얼굴이 천천히 크게 확대되면서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잘려진 하얀 공백이 여름날의 눈부신 햇빛으로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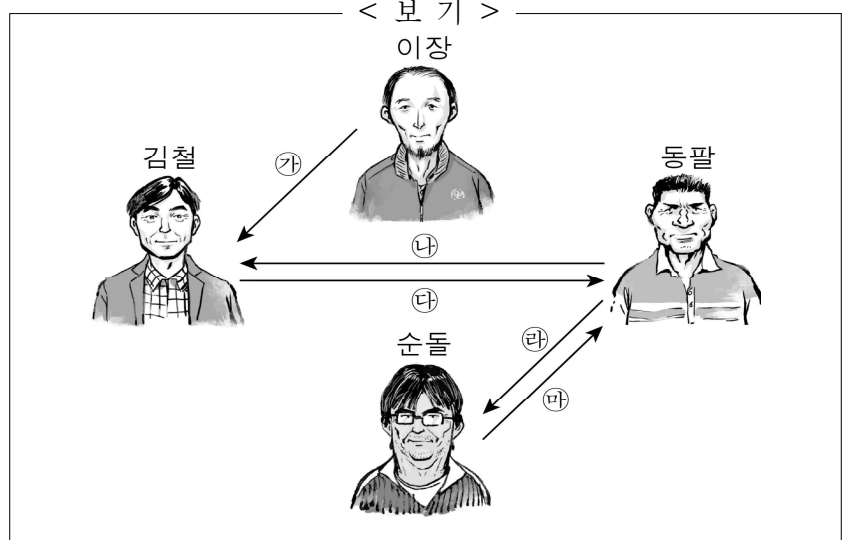
S# 20. 회상

매미 울음소리. 피약벌 아래에 늘어서 있는 군인들. 모자챙 아래 그들이 드리워진 얼굴이 무표정하다. 후줄그레한 군복. 군인들 뒤쪽에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못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문덕배의 얼굴이다. 소총의 노리쇠를 후퇴시켜 총알을 장전하는 날카로운 쇠소리. 병사 한 명이 정면을 향해 소총을 겨누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총구. ㉤ 매미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인 숨막히는 정적.

- 이창동·임철우·박광수, 「그 섬에 가고 싶다」 -

* Off Scene : 인물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말소리만 들리는 것.

37. <보기>에 따라 인물들의 태도를 정리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덕배'의 행동이 미쳤던 부정적 영향을 알면서도, 배가 들어오게 하려는 '김철'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
- ② ㉡: '김철'이 '문재구'와 함께 섬을 찾아온 일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냉담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 ③ ㉢: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배를 들이는 데 반대하는 '동팔'이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 ④ ㉣: '문재구'의 처지를 고려해 주자는 '순돌'을, 과거의 행동을 들추면서 비난하고 있다.
- ⑤ ㉤: '김철'을 대하는 '동팔'의 태도가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면서 원래의 태도를 유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팔'의 심적 상처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김철'의 의지를 상징한다.
- ③ ㉢: '동팔'의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 ④ ㉣: '문덕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⑤ ㉤: 극도의 적막감과 긴장감에 휩싸인 분위기를 부각한다.

39. [A]를 영화로 형상화하고자 할 때, 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과 '술잔'을 소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어.
- ② '김철'의 떨리는 손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좋겠군.
- ③ 처마에서 낙수가 떨어지는 장면을 중간에 삽입해야겠군.
- ④ '김철'은 서울 말투를, 나머지 인물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군.
- ⑤ '김철'은 주변 분위기에 차츰 동화되는 심리를 행동을 통해 드러내도록 해야겠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상표현주의는 1940, 50년대 나치를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회화 사조이다.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세계 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이성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화가의 감정과 본능을 추상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은 자유로운 기법과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 제작 방법을 통해 화가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잭슨 폴록을 들 수 있다. 그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는 사고를 초월하여 마음껏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지각이 가능한 대상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그림에서 어떤 구체적 형상을 떠올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그림을 대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 자체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였다.

특히, 폴록의 <No. 1> ~ <No. 32> 연작은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는 이 작품들을 창작하면서, 대상의 외형을 재현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존 방식의 드로잉을 거부했다. 그 대신에 화폭을 바닥에 놓고 막대기나 팔레트나이프나 에나멜페인트나 래커, 모래를 뿌리는 드리핑 방법을 통해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폴록은 물감을 흘리고 뿌리면서 커다란 화폭을 돌아다니는 액션페인팅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순간적으로 떠올린 영감에 따라 물감을 흘리는 행위를 한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액션페인팅은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폴록에 의하면 화가는 어떤 목적에 통제를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의 영감을 통해서 ㉠ '능동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폴록은 드리핑 작업에서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하 구별이 없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그리는 전면회화(All Over)를 구사했다. 그림으로써 화면과 벽면으로 구별되는 액자 형태의 그림과 달리 그림의 상하좌우를 규정짓는 구도를 약화시키고, 입체감이나 공간감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관념도 배제했던 것이다.

폴록은 새로운 재료를 통한 실험적 기법, 창조 행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화가가 의도된 계획에 따라 그림을 그려나가는 회화 방식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폴록으로 대표되는 추상표현주의는 과거 회화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회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회화의 특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잭슨 폴록이 사용한 기법의 특징
- ② 잭슨 폴록의 작품 경향의 변천
- ③ 추상표현주의의 예술적 의의
- ④ 추상표현주의의 회화적 경향
- ⑤ 추상표현주의의 등장 배경

41. 윗글을 읽은 학생이 다음의 (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드리핑 행위는 기존의 회화적 관습을 탈피하여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려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겠군.
- ② (가)의 드리핑 행위는 사회의 무질서를 고발하려는 화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는 화폭의 중심부에 초점을 두고 화가의 감정과 본능을 담으려는 데 충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지각이 가능한 대상을 표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체감을 부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

42. 글쓴이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성이나 질서를 통해 대상의 근원적 가치를 표현하려는 행위이다.
- ② 대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③ 액자 형식의 작품을 통해 화가의 개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행위이다.
- ④ 기존 방식의 드로잉 기법에 실험적 회화 기법을 접목시키려는 행위이다.
- ⑤ 새로운 회화 재료를 통해 화폭에 최대한 공간감을 형성하려는 행위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릴 때, 이를 ‘집중 호우’라고 한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을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상승하는 공기가 충분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냉각되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응결되면서 구름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열이 상승하는 공기에 공급되어, 공기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승하던 공기는 더 이상 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의 대기보다 차가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구름도 발달하기 어렵게 된다. 만일 상승하는 공기가 일반적인 공기에 비해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일 경우에는 상승 과정에서 수증기가 냉각, 응결하며 방출하는 열이 그 공기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일반적인 공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도 계속 새로운 구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름을 생성하고 그 구름들이 아래쪽부터 연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두터운 구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구름을 ㉠ 적란운이라고 한다. 적란운은 형성되는 높이에 따라 소나기를 내릴 수도 있고 집중 호우를 내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적란운은 지표로부터 2~3km 이내에서 형성된다. 적란운에서 비가 내리면 적란운 아래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내려가 밀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낮은 주위로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주위에 퍼진 차가운 공기가 원래의 적란운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다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적란운을 만들게 된다. 이때 새로 만들어진 적란운은 기존 적란운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란운 바로 아래 지역에만 30분에 30mm에 못 미치는 비가 내린 후 그치게 된다.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소나기이다.

그런데 만일 기존의 적란운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적란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두 개 이상의 적란운이 겹쳐지면서 한 지역에 동시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집중 호우가 발생하게 된다. 집중 호우를 발생시키는 적란운을 형성하는 공기는 일반적인 적란운을 형성하는 공기보다 그 온도와 습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란운보다 고도가 더 낮은 곳에서부터 구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수백 미터에 불과한 높이에 적란운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적란운의 바닥과 지표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적다. 그래서 비가 내리더라도 차가워진 공기가 멀리 퍼지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 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적란운 바로 가까이 새로운 적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적란운과 동일한 장소에 여러 개의 적란운들이 몰리어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된다. 이것이 ㉡ 집중 호우의 메커니즘

이다.

* 연직: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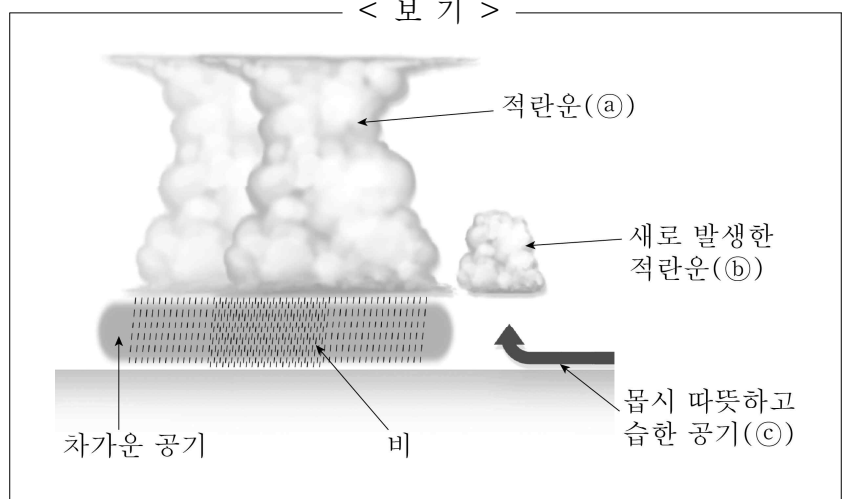
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나기와 집중 호우는 적란운에서 내린다.
- ② 구름이 생성될 때는 열의 방출이 일어난다.
- ③ 구름에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대기보다 낮아질수록 구름은 더 크게 발달한다.
- ⑤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의 비가 내렸다면 ‘집중 호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4.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의 형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 ① 지표면 주변의 하강 기류
- ② 상승하는 공기 주변의 지형
- ③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 ④ 구름 속 얼음 알갱이의 존재 유무
- ⑤ 구름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람 작용

45. <보기>는 ㉡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바닥과 지표 사이의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높아지겠군.
- ② ㉠의 바닥과 지표 사이의 높이가 낮다는 점은 집중 호우를 만드는 조건 중 하나이군.
- ③ ㉡가 더 발달한다면 그 아래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단시간에 내리게 할 수 있겠군.
- ④ ㉢가 습기가 적고 차가운 공기라면 집중 호우 지역이 더 확대되지는 않겠군.
- ⑤ ㉢가 비에 의해 식은 차가운 공기와 만났기 때문에 ㉡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